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글로벌 주식시장 부진 가능성 알리는 다섯 가지 신호
  - ◇ (초점)-이주열 '전략적 모호' 통했나.. 해외 IB 들 반응도 제각각
  - ◇ (초점)-11 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증권사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 나선 이유
  - ◇ (초점)-한은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원화 약세 확대 이유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듣는 동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S 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다. (로이터/조나단 언스트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27일 종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20(%)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20(%)  |
|---------|----------|--------|---------|----------|------------|-----------|--------|---------|----------|
| 달러 대비   | 1,169.2  | 0.9%   | -7.1%   | +6.5%    | 유로         | 1.1793    | 0.8%   | -3.5%   | +8.9%    |
| 100엔 대비 | 1,057.1  | 1.2%   | -0.5%   | +1.1%    | 엔          | 109.82    | 0.0%   | -6.0%   | +5.2%    |
| 유로 대비   | 1,369.4  | 0.4%   | -3.2%   | -2.3%    | 위안         | 6.4815    | 0.2%   | 0.7%    | +6.7%    |
| 위안 대비   | 179.41   | 0.7%   | -7.3%   | -0.3%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0(%)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0(%)  | 다우존스       | 35,455.80 | 1.0%   | 15.8%   | +7.2%    |
| 코스피     | 3,133.90 | 2.4%   | 9.1%    | +30.8%   | 나스닥        | 15,129.50 | 2.8%   | 17.4%   | +43.6%   |
| 코스닥     | 1,023.51 | 5.7%   | 5.7%    | +44.6%   | S&P500     | 4,509.37  | 1.5%   | 20.1%   | +16.3%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0(bp) | MSCI APxJP | 648.99    | 3.8%   | -2.0%   | +19.8%   |
| 국고채 3Y  | 1.408%   | 4.4bp  | 43.2bp  | -38.4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0(bp) |
| 국고채 5Y  | 1.667%   | 7.0bp  | 33.2bp  | -14.5bp  | 미국채 2Y     | 0.219%    | -0.7bp | 9.8bp   | -144.0bp |
| 국고채 10Y | 1.939%   | 8.6bp  | 22.6bp  | +3.0bp   | 미국채 10Y    | 1.310%    | 5.5bp  | 39.8bp  | -99.8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20(%)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20(bp) |
| 유가(WTI) | 68.74    | 10.6%  | 41.7%   | -20.5%   | 한국 5Y      | 18.0bp    | 0.0bp  | -4.0bp  | +0.1bp   |
| 금(현물)   | 1,816.67 | 2.0%   | -4.2%   | +25.0%   | 일본 5Y      | 17.5bp    | 0.2bp  | 2.5bp   | -4.5bp   |
| TR상품지수  | 3,001.02 | -3.3%  | 12.0%   | +7.8%    | 중국 5Y      | 34.4bp    | -0.9bp | 6.3bp   | -3.6bp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8월 30일(월)>

- 한은, 기초적 물가지표 점검(BOK 이슈노트)(12:00)
- 한은, 2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12:00)

### <31일(화)>

-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 기재부,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11:10)
- KDI, 북한경제 리뷰(12:00)
- 금감원,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12:00)
- 한은, 2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현황(12:00)

### <9월 1일(수)>

-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09:00)
- 금융위, 금융리스크 점검회의(12:00)
- 금감원,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12:00)
- 한은, 2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 <2일(목)>

- 한은, 8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1차관 정례브리핑(13:30)
- 한은, 2분기 국민소득(잠정)(08:00)
-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3일(금)>

- 통계청,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8월 30일(월)>

- 일본 7월 소매판매 (08:50)
- 유로존 8월 기업환경지수 (18:00)
- 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23:30)

### <31일(화)>

- 일본 7월 실업률 (08:30)
- 일본 7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중국 8월 NBS 제조업·서비스업 PMI (10:00)
- 일본 7월 건축주문·주택착공 (14:00)
- 유로존 8월 CPI (18:00)
- 미국 6월 주택가격 (22:00)
- 미국 8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8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9월 1일(수)>

- 일본 2분기 기업설비투자 (08:50)
- 일본 8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10:45)
- 유로존 9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17:00)
- 유로존 7월 실업률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8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8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22:45)
- 미국 7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8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23:00)

### <2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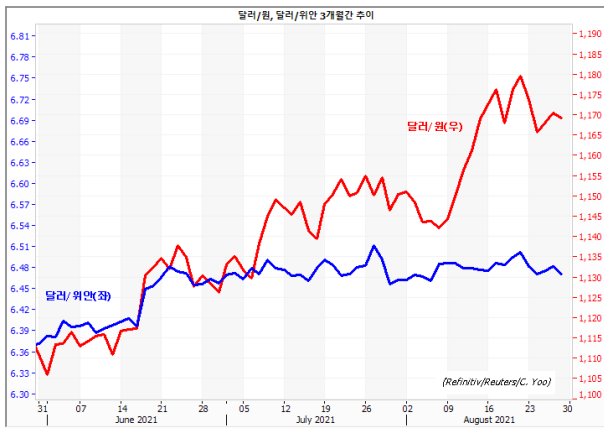
-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8월 펠리저해고건수 (2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2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1:30)
- 미국 7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23:00)
- 미국 7월 공장주문 (23:00)

### <3일(금)>

-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8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17:00)
- 유로존 7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실업률 (21:30)
- 미국 8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22:45)
- 미국 8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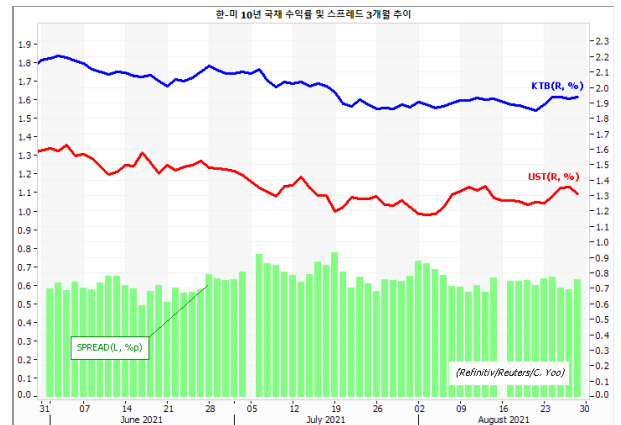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외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수급 여건을 살피며 박스권 상·하단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55-1175 원이다.
-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잭슨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내 긴장감은 다소 약해졌다.
- 위험 선호 성향이 강화되고 달러 강세까지 누그러진 만큼 달러/원 상당 저항은 두터워진 채 1180 원대 고점 인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 다만 환율의 적극적인 되돌림을 기대하려면 역내 수급의 도움이 필요하다.
- 오는 1일 발표될 8월 수출입 잠정치에서 수출입 증가율 결과도 결과지만 무역수지 규모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 달러/원 단기 고점 확인에 따른 네고 유입과 강도, 역외 통 처분 등 확인한 수급 변화가 수반될 지에 따라 환율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31 일에는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8월 분기 리뷰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중 나올 주목할 대외 지표로는 중국 제조업·비제조업 PMI가 있다. 중국 경제둔화 우려에 때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만큼 지표 결과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야겠다.
- 한편 국내 주요 지표로는 7월 광공업생산, 8월 수출입 잠정치와 8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8월에 이어 연달아 10월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겠지만 11월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 하지만 11월까지 시간이 남았고, 시장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반영했고 포지션은 가벼우니 3년 국채선물은 견조하다.
- 외국인의 가격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3년 국채선물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변수는 결국 코로나 19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6월 중순 이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태평양과 미주 지역을 뺀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거나 감소했다.
- 국내 시장은 향후 백신 접종률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국내 시장참가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9월 국채선물 만기가 지나면 외국인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 미국의 통화정책 변수가 남지만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내 테이퍼링' 발언에 대한 반응에서 확인한 것처럼 시장은 이미 소문에 팔아 왔고 '뉴스에 사는' 시점이기도 하다.
-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과 연동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는 1일 한국 8월 수출입과 제조업 PMI, 중국 8월 차이신 PMI 제조업지수, 미국 8월 ISM 제조업지수가 있다. 2일에는 한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3일은 미국 8월 비농업부문고용지수와 실업률, 8월 ISM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된다.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분석)-글로벌 주식시장 부진 가능성을 알리는 다섯 가지 신호**

런던, 8월 26일 (로이터) - 글로벌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몇 달간 소위 리플레이션 거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다.

소비자 서베이, 파생상품 등 많은 지표를 살펴보면 새로운 촉매제 없이는 가을 동안 시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전환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롬바드 오디에의 바실리오스 지오나키스 외환 전략 글로벌 헤드는 "주가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방어주로의 로테이션이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 변동에 덜 취약한 방어주가 최근 경기순환주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비슷하게 봉쇄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보였던 기술주 등 고성장 업종도 다시 선전하고 있다.

다음은 이같은 추세를 보여주는 다섯 가지 그래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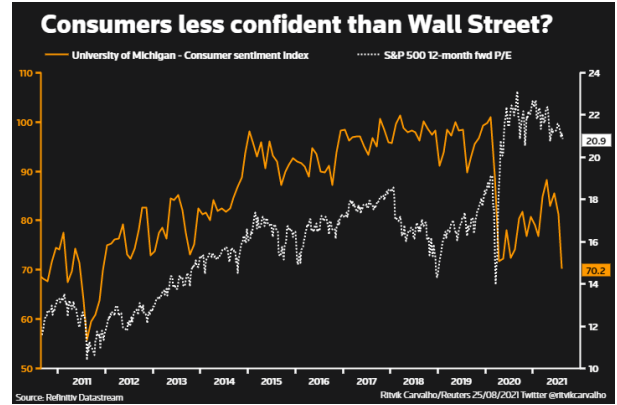
**1. 소비자 심리**

미국 소비자 심리와 월가 전망 간 격차는 최소 13년만의 최대까지 벌어졌다.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S&P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2023년 상반기까지 두 자릿수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8월 초 미국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가 10년 만의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소비자들은 덜 낙관적인 모습이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기업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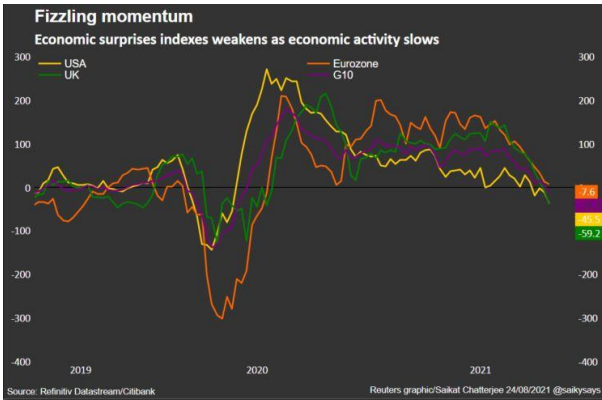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승 효과는 이미 상당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되는 등 코로나 19 4차 유행 관련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25일 발표된 독일 IFO 서베이에서 확인됐다.

경제 지표가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거나 미치지 못한 정도를 측정하는 씨티의 글로벌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이번 주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달 유럽 제조업 서베이 잠정치는 1월 이후 최저로 떨어져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급관리협회(ISM)의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정점을 찍으면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외)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평소처럼 PMI와 관련된 흔들림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취약할 수 있다"며 평소 추세로 돌아온다면 "향후 6개월 동안 S&P 지수가 10~15% 하락하거나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3. 숨 고르기 간격

세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가려지고 있다. 시장의 숨 고르기 간격이 크게 좁아졌으며, 이는 이전보다 더 적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나스닥지수에서 상승 종목은 1876개, 하락 종목은 1039개였지만 8월 현재까지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1457개이며, 하락 종목은 1936개인 것으로 레피니티브 자료에 나타났다.

밸리 참여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강세론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아지면서)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이 정점을 지났고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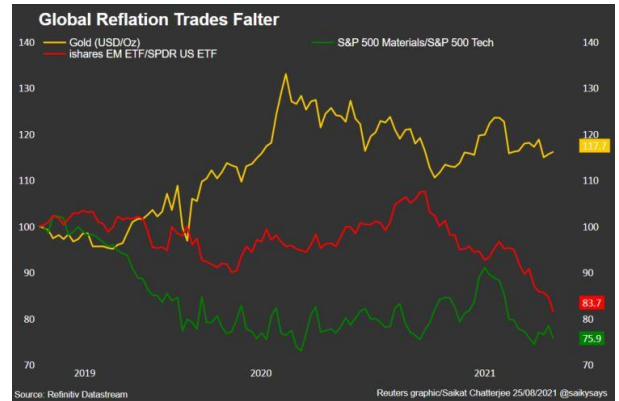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4. 리플레이션 거래 재고

금 등 안전자산을 매도하고 경제 회복의 수혜를 볼 여행, 은행 등 가치주에 투자하는 리플레이션 베팅은 올해 상반기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5월 이후 12% 하락했던 금 가격은 지난 2주 동안 7% 반등했지만 재료주, 신흥국 관련주, 가치주 모두 최근 몇 주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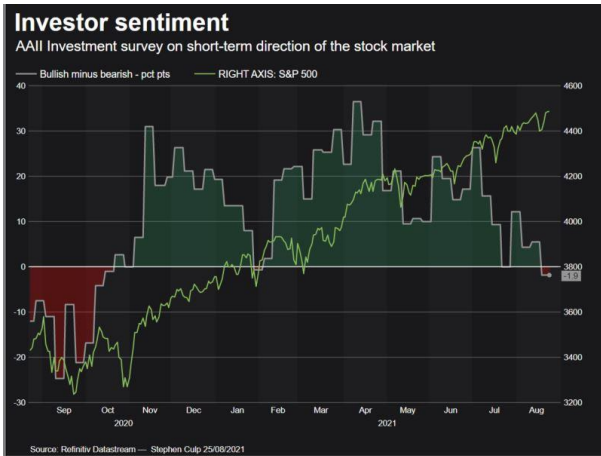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5. 포지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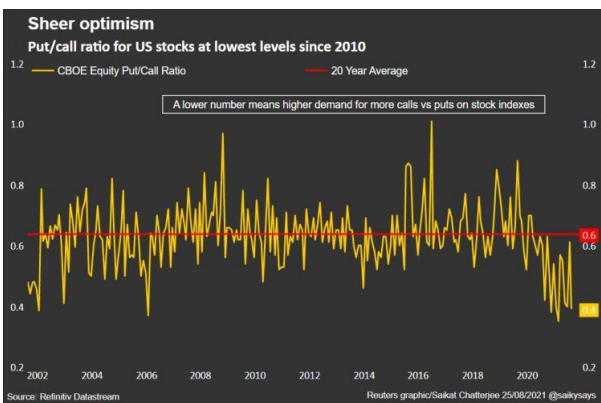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S%P500 지수의 주식 풋-콜 비율(put-call ratio)은 올해 최저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시장 하락보다 상승을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올해 초 비인기 종목에 베팅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열정은 줄어든 듯하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측정하는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서베이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이주열 '전략적 모호' 통했나..해외 IB 들 반응도 제각각**

서울, 8월 27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금리 인상 전망을 두고 차이를 보였던 해외 투자은행(IB)과 분석기관들은 회의 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으나, 대부분 기존 전망에 변화를 줄 만큼 의미 있는 상황 변화는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26일 금통위 회의에 앞선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30명의 응답자 가운데 인상과 동결 전망은 각각 16명과 14명으로 부딪혔었다.

크게 8월과 11월 두 차례 인상 시나리오나 8월 동결과 4분기 인상 시나리오로 갈렸던 해외 기관들은 금통위 이후로도 여전히 연내 두 차례 인상과 한 차례 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금통위 직후 보고서를 발표한 해외 기관 8곳 가운데 연내 두 차례 인상을 예상했던 4곳은 11월 추가

인상 전망을 유지한 반면, 연내 한 차례 인상을 예상했던 4곳은 대부분 다음 인상 시점으로 내년을 제시했다.

**▲ 이 총재의 '전략적 모호' 성공?**

금리 인상과 동결 모두 충분히 가능했던 이달 금통위 회의였던 만큼, 시장에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재유행과 일부 지역의 경제 상황 변화 등이 국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다.

기자간담회 내내 이 총재의 발언들은 철저하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가득했고, 결론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 어느 쪽도 견해를 바꿀 정도로 명확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총재가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려 했다면 이날 기자간담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만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확산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고, 주택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됐다면서도 저금리 외에 정부 정책 및 수급 요인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기준금리 수준은 실질 기준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근 재추정 결과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해 역시 애매한 자세를 유지했다.

**▲ "11월 추가 인상 명분 충분"**

바클레이즈, 씨티, 노무라, 캐피탈이코노믹스 등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던 기관들은 한은이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크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은 최근 국내 백신 접종률 가속화, 한은의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변수 등을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급격한 백신 접종 속도 진전은 곧 방역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의 주된 우려는 아니긴 하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를 더 한다"고 덧붙였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금통위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향후 기준금리 결정의 변수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데 주목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은 9월 시사이후 1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 ▲ "연내 추가 인상 어렵게 하는 변수들"

반면, ANZ, DBS, ING,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등 8월 동결과 4분기 인상을 예상했던 기관들은 다음 인상 시점으로 연내보다 내년에 무게를 뒀다.

다만, ING는 다음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은 채, 한은이 연내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probably)...'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배경으로 델타 변이 확산,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일부의 우려 등을 제시하면서 한은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ANZ는 "내년 1분기가 안전한 경제활동 재개, 중국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세 안정화 효과, 반도체 업사이클 지속 여부 등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DBS도 "중국 경기 둔화 및 델타 변이로 인한 신흥국 '더블딥' 리스크, 반도체 사이클 정점 통과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연준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경기 변수에 주로 기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했을 때, 통화 당국은 가계 부문에 대한 불안정 효과를 피하기 위해 기준금리 정상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초점)-11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증권사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 나선 이유

서울, 8월 2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결과를 받아든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IRS의 경우 단기 테너를 중심으로 비드가 쏟아지며 밀린 반면 채권시장에선 증권사들이 3년 국채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가격을 지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오후 2시 52분 현재 3년 국채 선물 9월물은 전날보다 9틱 상승한 110.44, 10년 선물은 10틱 오른 127.90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사가 3년 선물만 2만계약 가까이 순매수하며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내용도 그다지 '도비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3년 국채 선물을 중심으로 한 가격 반등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딜러들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까지 3년 국채 선물을 대량 매수했던 외국인도 이날 금통위 결정 이후 손절성 매도를 내놓는 와중에 증권사가 대량 환매에 나서며 '출구'를 만들어준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2%까지 떨어졌다는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날 전반적인 기자간담회 내용을 채권에 우호적으로 보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저금리 지속 기대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융당국이 지금보다 대출 규제를 늘린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 어렵다는 지적, 물가가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언급,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크다는 발언 등 이날 이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가 금리 인상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추가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한다는 표현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이 총재가 밝힌 것은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우회

적으로 시사하기 위해 준비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오늘 소수의견은 한 명뿐이었고 이 총재가 다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고 발언 톤도 어느 정도 매파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이 총재가 점진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에서 백투백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고 소비와 물가, 백신,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감안했을 때 11월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증권사의 국채 선물 환매 때문에 IRS와 채권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일단 IRS는 페이로 들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증권사의 대규모 국채 선물 환매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10월이 아니라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고, 두 번 금리 인상은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했고, 캐리는 좋고, 당분간 국고채 수급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장 마감 후 발표되는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관련 루머가 증권사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오늘 이 총재의 발언은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봤다"며 "외국인과 개인은 동결 베팅을 했다가 물러서려 했는데 증권사가 알아서 가격을 올려주니 손절성 스타미 차익 실현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포지션의 손 바꿈이 일어나는 장세로 방향성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워 보인다"며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미국의 테이퍼링 일정이 확정된 후 10월이 지나면 다시 반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 증권사 채권 딜러는 "지난 2주 동안 증권사가 외국인 매수에 대응하며 23억 델타를 받아냈는데 지금은 그걸 푸는 정도"라며 "오늘 내용만 보면 11월 인상이 가능해 보이지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반영도 많이 돼 있고 포지션도 쏠려 있다 보니 오늘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월 금통위 회의 때는 당일날 이렇게 강해지다 다음 날부터 크게 밀리면서 베어 플래트닝이 나타났다"며 "이번엔 30년물 입찰 준비가 덜 돼 있어 10년 선물은 더 강해지기 어렵고 3년 선물은 밀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초점)-한은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원화 약세 확대 이유는?**

서울, 8월 2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한국은행이 약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초저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원화는 오히려 약세 시도에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까지 낮춘 이후 9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 확대에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기존의 4%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이 이번 조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돼도 저금리 지속 기대가 있으면 (정책) 효과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데다 이 총재의 잠재 성장을 하락 관련 발언 등을 주목하면서 도비시한 측면도 주목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금통위를 소화하며 일간 저점 대비 8원이나 반등했다.

### **▲ 이 총재의 아리송한 환율 발언**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원화의 약세에 대해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



세가 상당히 작용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변동 확대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소위 모범 답변도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주문한 것과는 확연히 온도차가 난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결국 환율이 오르는 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 아니냐"면서 "주식이 안 좋을 때나 달러 강세일 때는 환율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걸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 ▲ 미국 차별화 테마와 강 달러 기대..수급 시그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 국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경기 회복과의 연관성은 더욱 강화됐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 이후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가 강하게 되살아나고, 그 결과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리스크 회복에도 결국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미국 경제의 차별화 테마가 강해진다면 미국 자산 매력도는 올라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자산 매력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맥락 속에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에 강 달러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리퍼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에 18일(현지시간)까지 한 주간 미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액이 근 2개월 만의 최대치로 증가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뉴욕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 매수 여력은 크게 떨어져 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조정받은 이후 한국도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결국 미국 경제 차별화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델타 변이가 심하다 한들 연준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결국 시기가 문제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간밤 글로벌 위험 선호 분위기가 꺾인 채 증시는 하락세를, 달러 반등에 주요 아시아 통화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원 넘게 순매도 중이고 이와 관련한 달러 수요를 비롯한 단단한 매수세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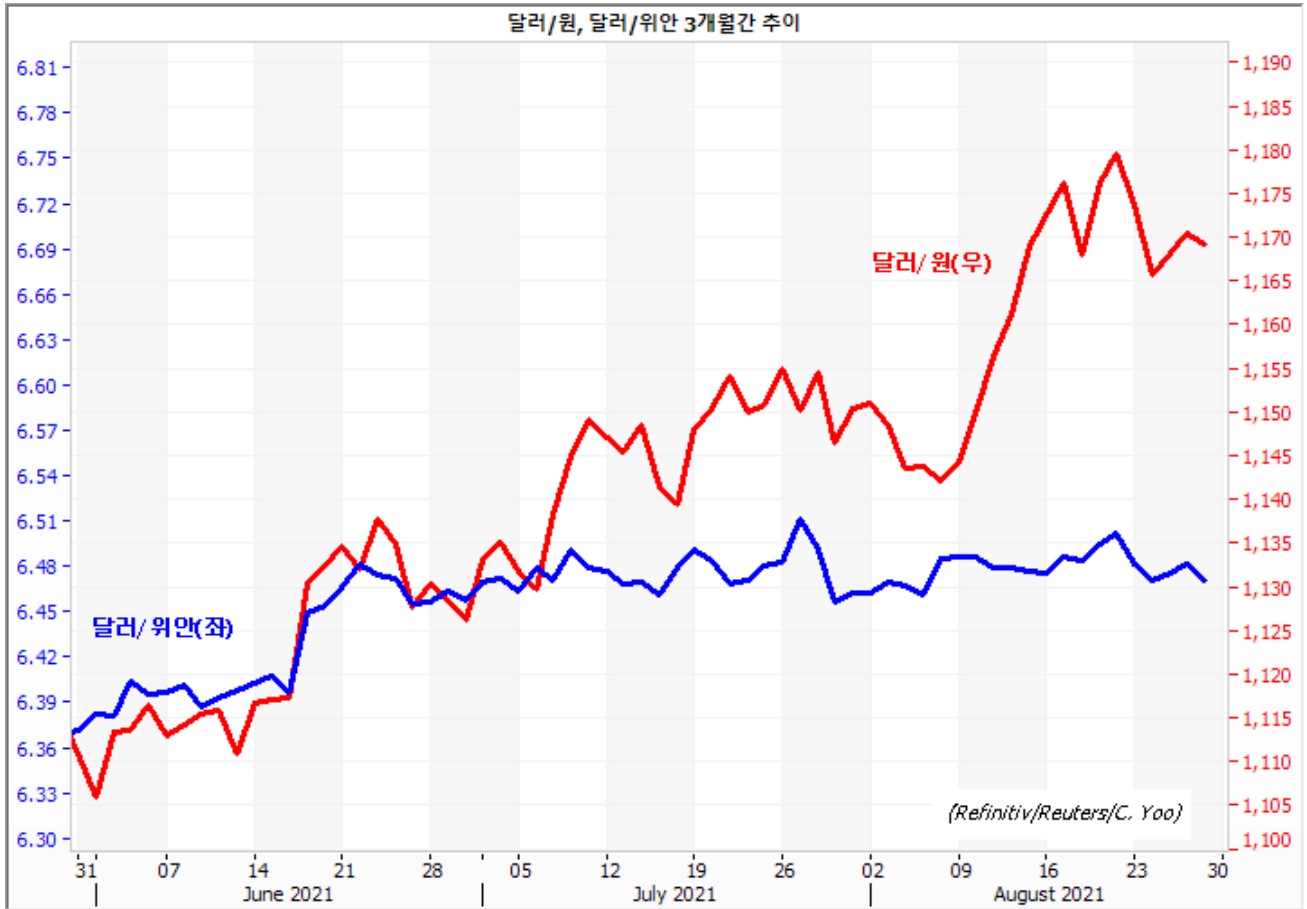
D 은행 외환 딜러는 "이 총재 발언만 보면 매파적이었다고 봤지만, 외인 주식 매도 확대와 이에 따른 실수요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수급이 수요 우위로 형성되다 보니 금통위 이후 시장 심리도 수급에 따라 영향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인들이 어떤 대목에 초점을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주식 매도와 환율의 악순환 고리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오픈는 약해 수급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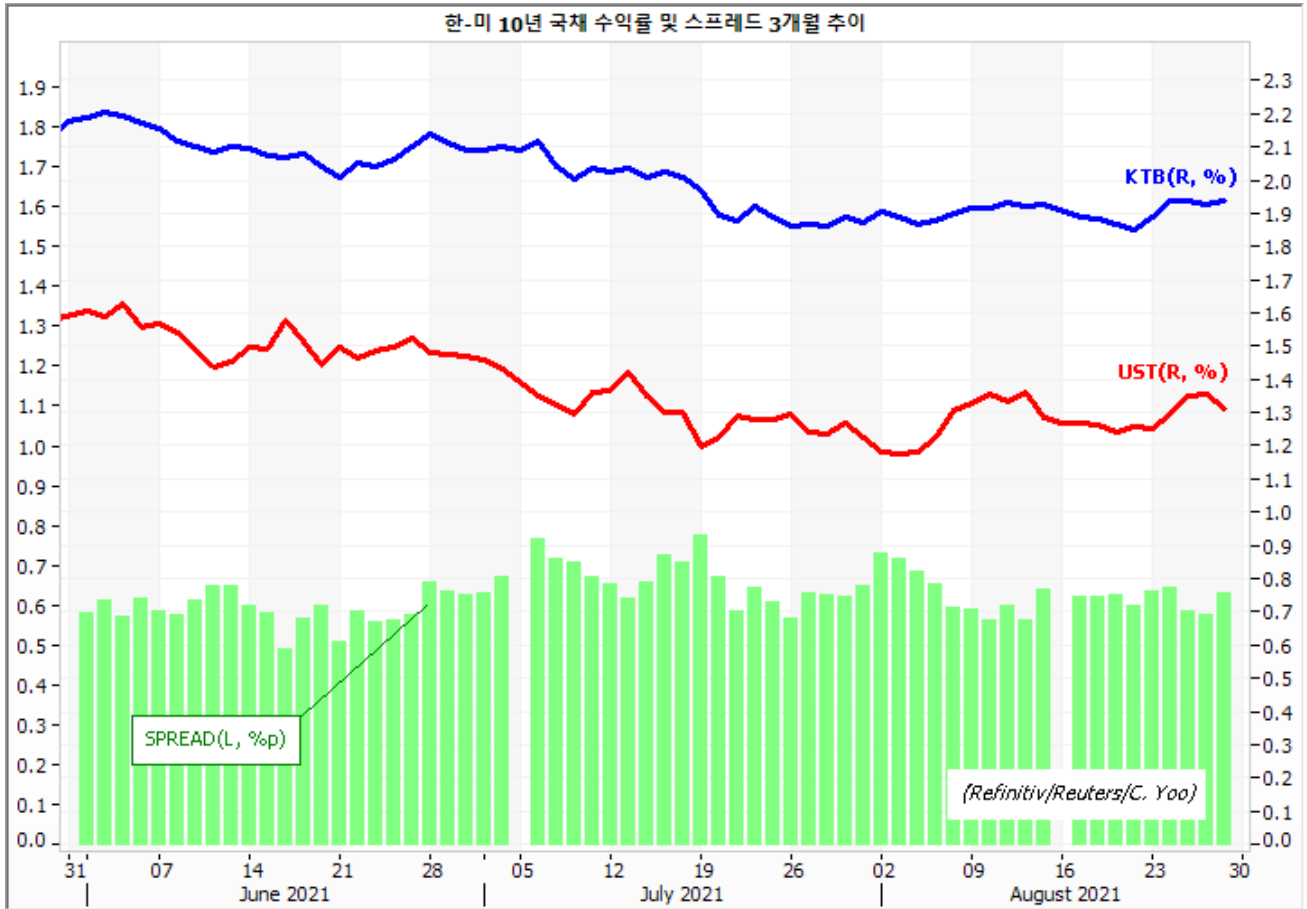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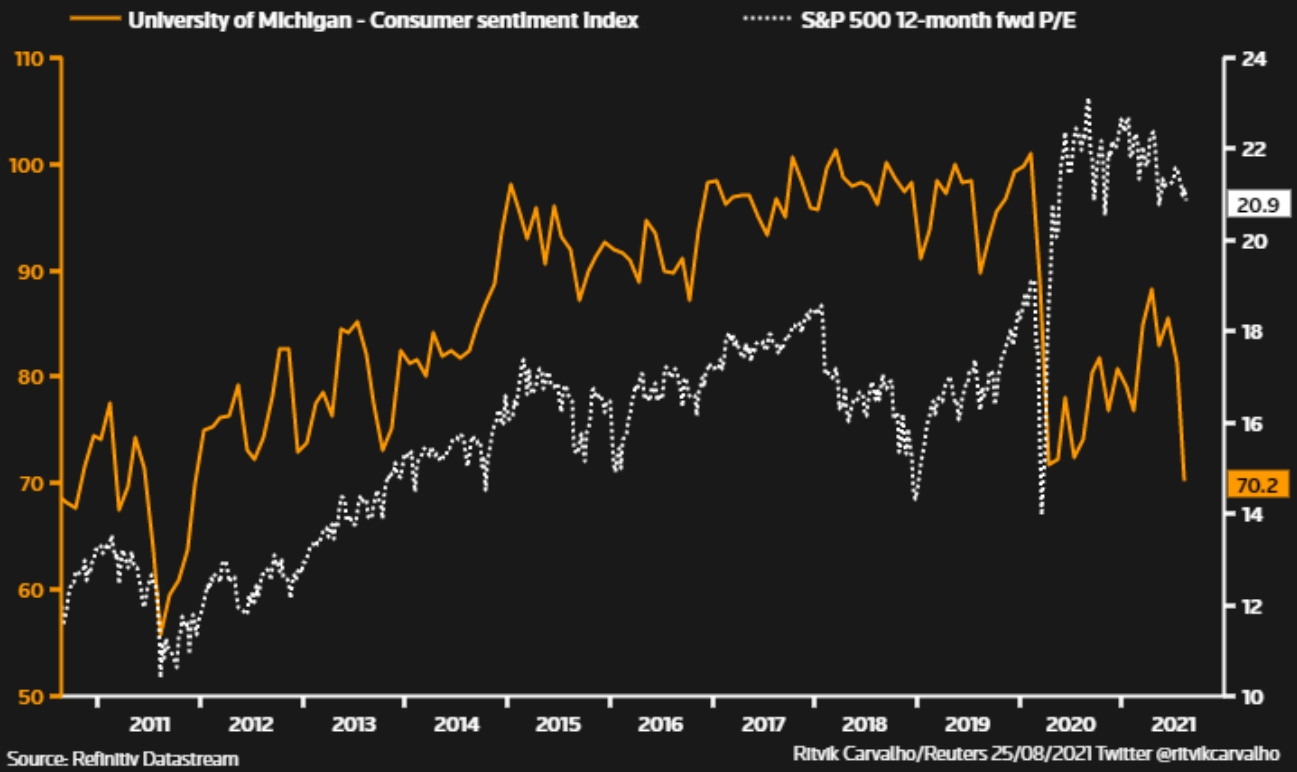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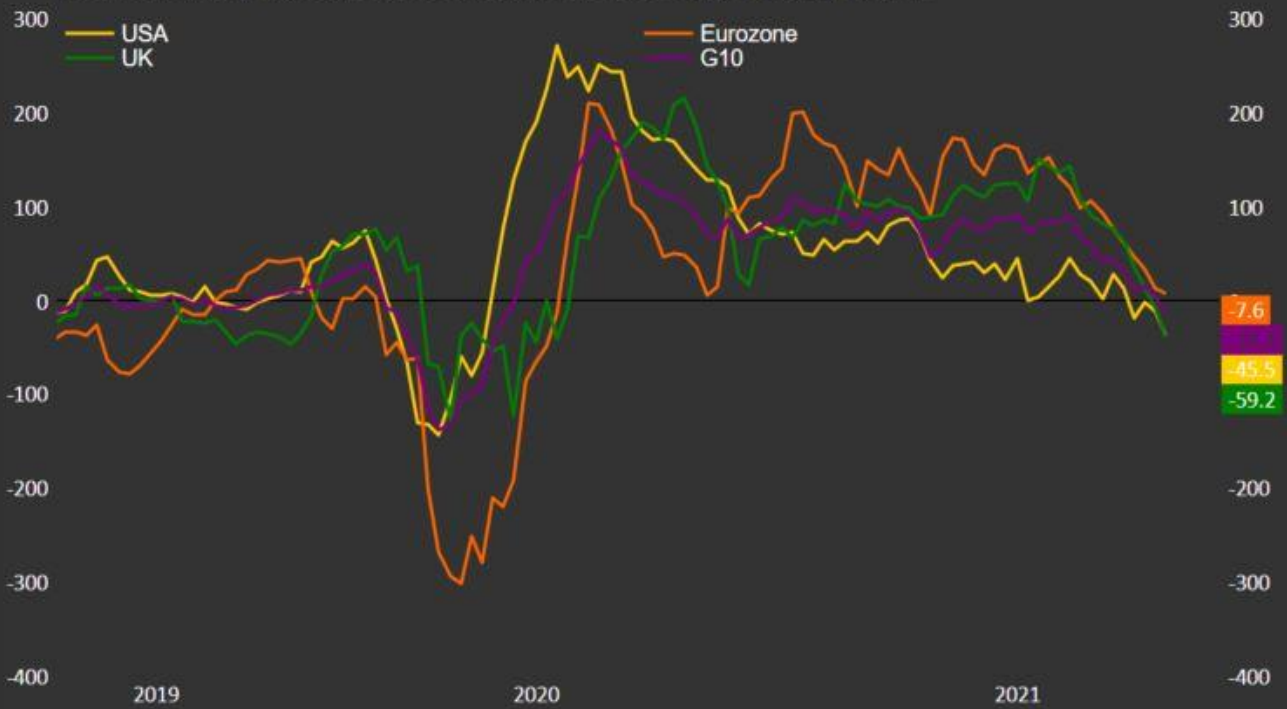
# Consumers less confident than Wall Street?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Fizzling momentum

## Economic surprises indexes weakens as economic activity s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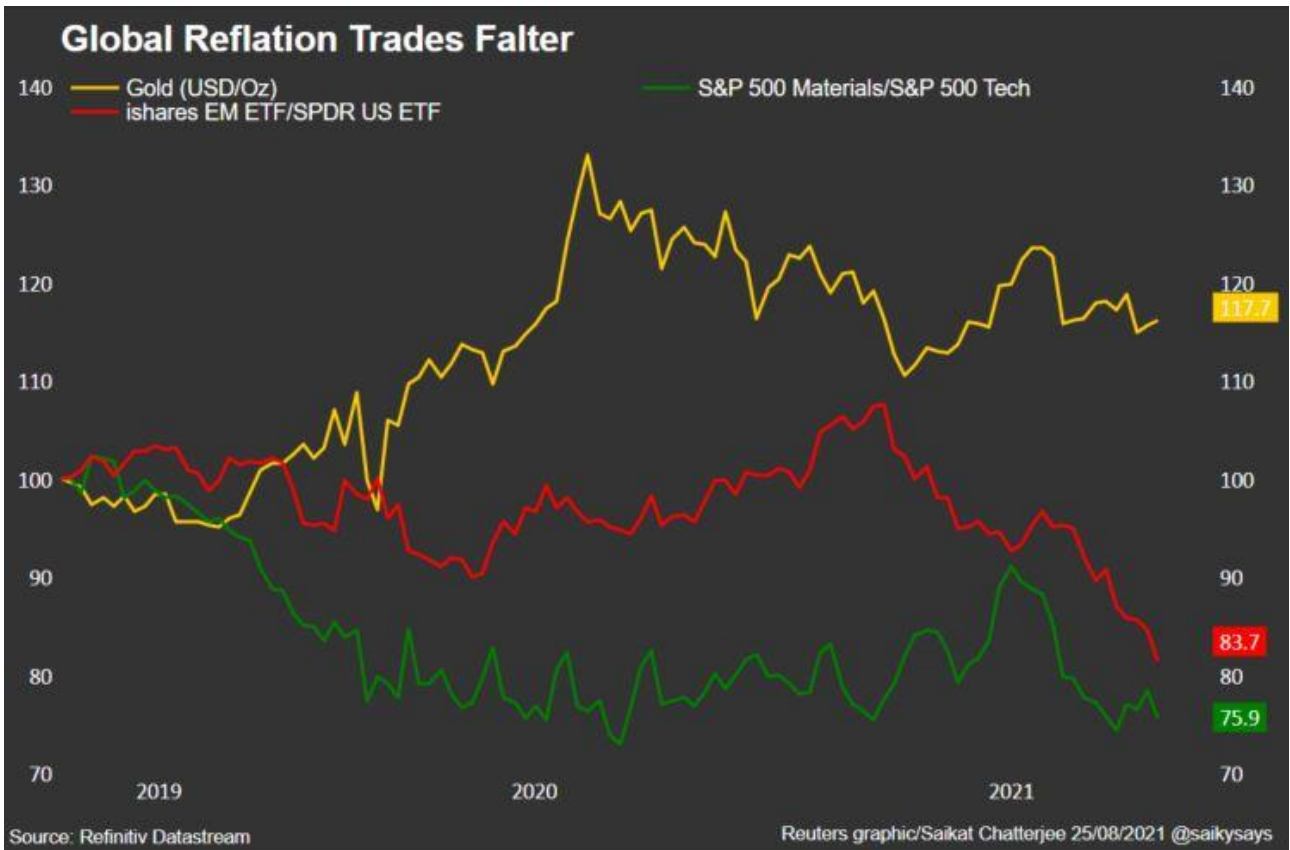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Citibank

Reuters graphic/Saikat Chatterjee 24/08/2021 @saikysay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Investor sentiment

AAll Investment survey on short-term direction of the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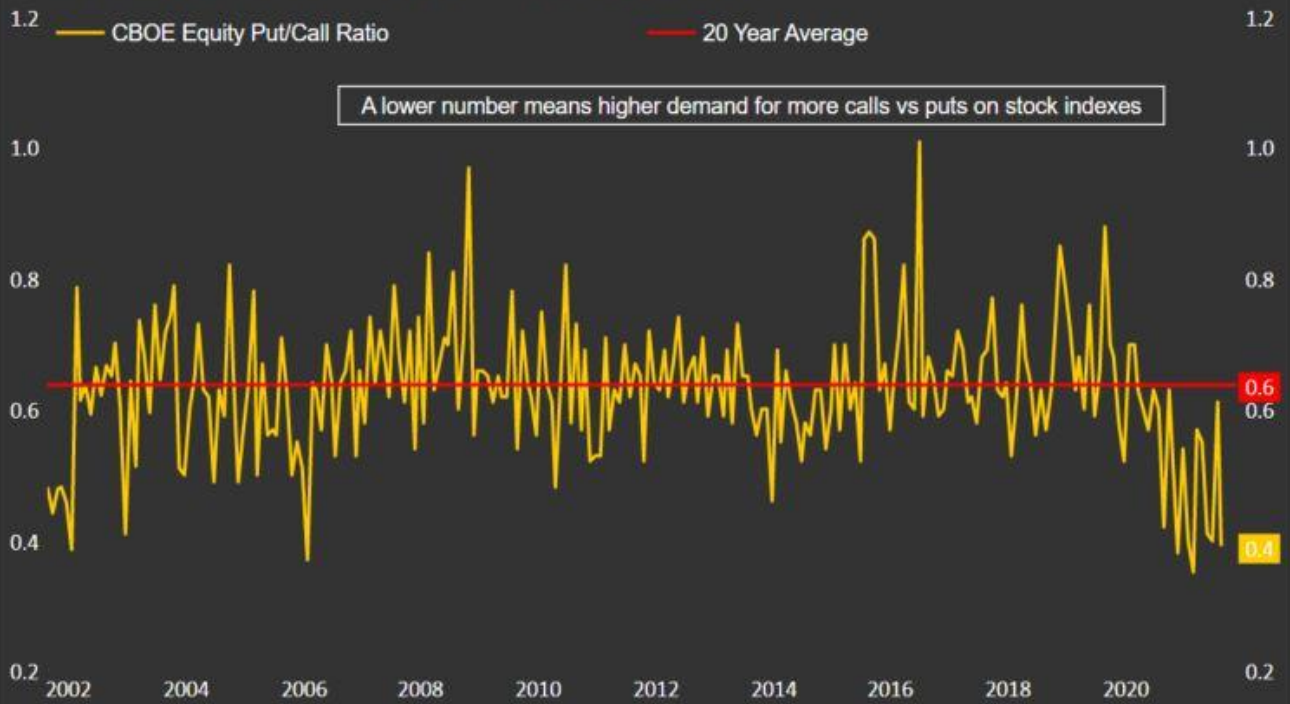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Stephen Culp 25/08/2021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Sheer optimism

Put/call ratio for US stocks at lowest levels since 2010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